



實名制이후 미분양상가 속출 14

은행마다 「高수익상품」 붐물 15

홈토피아 HOMETOPIA

세일에 맞춘 알뜰쇼핑 장

일본 게임機업계 "불황"

대도시 아파트 거주자들 사이에는 한때 「현대판 팔불출」을 가리는 방법으로 「아직도 아침에 세수를 하는 사람」이 꼽힌 적이 있었다. 집에 샤워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샤워실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빗대서하는 우스갯소리다.

요즘은 「하루에 세번이상 양치질하지 않는 사람」 「이틀째 같은 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도 같은 범주에 들게 생겼다.

이름하여 「청결 신드롬」. 이제 거뿔거뿔한 수염과 땀냄새 등은 남성다움의 상징

93.9.6

“아침샤워 - 하루세번 이닦기는 기본”

남성 「청결 신드롬」 확산

이라는 지위에서 밀려났다. 여성 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깨끗함은 기본예의로 자리잡게 됐다. 청결도가 그 사람의 신용 평가기준의 하나로 꼽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샴푸 전신세정제(보디클렌저) 탈취제 등 각종 청결용품시장도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다.

연세대 취업담당관 金弄柱씨(직업평론가)는 「여성은 물론 남성들에게도 깔끔한 외모연출은 성공의 필수과목이 되고 있다」고 들려준다.

면접시험에서도 피부가 깨끗하고 잡티가 있거나 머리가 텅수룩한 사람은 신뢰감이 깎여 점수가 떨어진다.

반면 깨끗한 차림은 맑은 정신으로 일도 건실하고 박진감있게 추진하리라는 믿음을 준다는 것이다.

올여름 20세안팎 젊은 남성들 사이에는 짙은 다리털을 면도하는 것이 유행이었



다고 미용연구가 黃賢씨는 말한다. 반바지를 입으면 불결해 보인다는 이유였다. 남자고교 교사들은 「남학생들도 면도에 로션에 무스까지 바르는 등 깔끔을 떨며 여드름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들려준다. 씻지 않으면 찌질해서 공부 안 된다는 학생도 있을 정도다.

깨끗한 외모연출 신용-성공요소 인식

수질오염을 일으킨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샴푸 린스 시장은 연10~15%씩 성장해 1천3백억원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매일 머리감기가 생활화되면서 91년말 제일제당은 샴푸의 고급화시대를 선언했고 P & G 등 다국적 기업에서는 샴푸를 앞세운 생활용품시장 공략에 나서 「샴푸 전쟁」을 방불케한다.

전신세정제는 매년30~40%씩 판매가 늘어날만큼 호황이다. (주) 피존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야 목욕은 때를

미는 주말행사였지만 이제는 깨끗함은 기본이고 피부미용 피로회복을 위한 일로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청결 신드롬에 맞춰 새로운 청결용품도 속속 개발되고 있다.

치솔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겨냥한 치아청결기(프라그와 치석제거는 물론 이를 희게 해준다고 선전하고 있다), 입냄새제거용 경도 인기를 끌고있다.

공중화장실 양변기를 닦는 전용물휴지도 나왔고 「볼

일」을 본후 두번만 뿌리면 냄새가 제거된다는 신종 탈취제도 선보였다. 「화장은 하는것보다 지우는것이 중요합니다」고 강조하는 이중세안용 클렌징화장품경쟁도 치열하다.

이러한 청결신드롬은 생활수준향상과 사우나습관확산에 따른 당연한 현상이지만 여러가지 분석도 가능하다.

신한종합연구소 李春國사 회문화팀장은 「일본의 경우 80년대까지 젊은이들은 기성의 질서규범을 파괴하는

샴푸 전신세정제 탈취제 등 청결용품 시장이 뜨겁다. 청결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기본덕목이며 안씻으면 못건디기까지 하는 「청결신드롬」이 확산되고 있다.

데 온힘을 쏟았다. 그러나 90년대에 들면서 가치관의 발판을 잃게되자 각종 규범을 부활시키기 시작했다. 중용 세련 청결등이 그것이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새로운 풍조와 신상품이 발빠른 기업에 의해 수입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청결함에 새로운 가치를 두게됐다는 분석이다.

또 「환경의 인간화」 현상에서 「인간의 환경화」로의 이행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사무실 백화점등 상업시설이 인간다운 환경으로 개선되면서 이제는 거꾸로 환경이 그에 맞는 깨끗한 인간을 원하게 됐다. 깔끔한 사무실에서 텅수룩한 사무원은 점수를 딸 수 없다. 세련된 백화점은 말끔한 외모의 사모님을 환영한다.

그러나 공중화장실 지폐버스손잡이등 타인과 접촉하는 환경을 불결시하는 심리속엔 누구의 침해도 받지 않으려는 폐쇄성도 엿보인다. 청결이 나쁠것이야 없지만 지나친 청결은 결벽증과도 통하기 때문이다.

(金順德)

그림이 있는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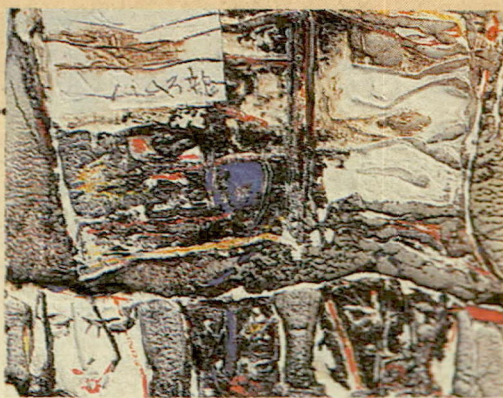
책의 애인

—아무리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도 인생의 애독자가 되기는 힘들다.

김대규

사람보다 책이 더 좋아 책하고 산다.

귀가할 땐 읽던 책이 기다리고 있음에 마음 뿌듯하고, 내일 끼니 없어도 다음 읽을 책 있으니 언제나 부자란다.



(그림 박수룡)

사람의 책만 책이 아니란다 사람의 일생도 책이란다.

유아기는 아름다운 동화집 소녀 소년기는 꿈의 시집. 젊은 시절은 사랑의 소설. 노년기는 지혜의 수필집. 아, 그러나 인생은 고뇌의 전집.

그 전집의 충실한 독자가 정말 책의 애인이라.

—새시집 「짧은 만남 오랜 이별」에서